



CHINA



○ 대련시가 변두리에 있는 평양관

재작년쯤인가. 중국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글을 이 연재에서 쓴 적이 있다.

예상대로 중국은 작년에 WTO 가입을 했고, 이어 2008년 올림픽을 유치했다. 나는 5년전부터 딸과 함께 중국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5년간 딸을 데리고 온 중국을 휘젓고 다녔다. 놀러다니는 것이 아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문화를 알고, 중국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중국은 '확실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중국에 대해 사정없이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딸은 전세계 800등인 서울대학교 진학을 때려치우고 중국어 학원에서 중국어를 공부했다. 나는 수만페이지의 중국에 관한 각종 보고서를 읽었다. 일본의 닛케이 비즈니스, 미국의 포브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참고서적을 다치는대로 읽었다.

간베이 44잔

그간 나는 중국 관리들과 많이 만났다. 그들과 토론하고 술자리를 가졌다.

요녕성의 2인자와는 첫날 만나 45도짜리 고티양주 '북대황'을 44잔이나 마셨다. 중국을 알려면 그들의 문화관습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기본 건배는 목이 타는 듯한 고티양주 3잔이 기본이었다.

2인자가 석잔, 길림성 변호사협회 회장이 석잔, 북방민항 총국장이 3잔하는 식으로 11명이 순서대로 일어나서 간베이(건배)를 제안했는데 그게 모두 33잔이었다.

북경에서는 경극 <패왕별희>를 보고 소주에서는 월곡을 배웠다. 소설가 노신의 고티양소흥에서는 운하 거리를 걸으며 노신이 생각하는 청나라 말기의 개혁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청도시의 관공처장(공보국장 격)인 마윈배씨는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 중국을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말해 나를 놀라게 했다.



글. 홍하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약 력

MBC 다큐멘터리 작가, 한국화장실문화협회 전문위원 / MBC다큐멘터리 270여편, MBC 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저 서 : '일본윙골목 옛보기', '프랑스 윙골목 이야기', '지구촌 윙골목 음식 한 그릇', '카리스마 vs 카리스마',
중국을 움직이는 10인의 CEO
소 설 : '외인부대원 표레앙'

'그건 퇴폐적이다'라고 반문했더니 그는 '우리는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요즘 중국은 더 이상 공산국가가 아니다.

그날 나는 청도 맥주 축제에 가서 청도 생맥주를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다. 더 놀라운 것은 항주 시청 지하에 립살롱이 있다는 것이다. 시청의 수익사업 중의 하나였다. 그렇게 중국에 대해 배웠다.

460개 품목 1위의 국가,중국

중국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체장들과도 만나 토론했다. 그 사이 중국은 전세계 1위 제품을 460개나 가진 강대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컬러TV,냉장고,세탁기,전자렌지,오토바이,신발,섬유,철강 등은 모두 세계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다.

전세계 500대 대기업 중에서 400대 기업이 이미 중국에 진출했다. 일본의 도시바는 전 공장을 중국으로 이동시키는 중에 있다. 일본의 파나소닉은 중국에 제2의 본사를 세웠다. 나머지 일본의 대가전사들도 모두 중국에 공장을 세웠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삼성,엘지,SK,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대기업은 모두 중국에 진출했다. 삼성의 핸드폰은 가격이 57만원이지만,중국 최고의 톱 브랜드이다.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않다. 청도의 하이얼 그룹은 냉장고 세계를 제패했다. 사천성의 창홍 그룹은 컬러TV로 세계를 제패했다. 중국조(中國造),즉 중국에서 만든 제품 모두 460개 품목이 세계를 석권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컬러TV,냉장고,세탁기 등 일반 백색가전에서는 중국제품에 대해 경쟁력을 상실했다.



● 중국관리들과의 저녁 술자리

● 대련 평양관의 상차림

● 대련 평양관의 실내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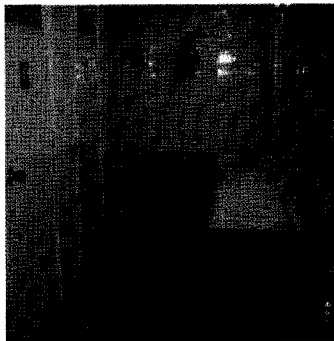


중국의 저가공세에는 당하기 힘들다. 29인치 TV가격이 16만원인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세계제일의 한국 반도체 산업과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격차는 이제 4-5년 정도에 불과하다. 딸과 중국여행을 다닌지 5년 후, 딸은 지금 중국의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정치학도가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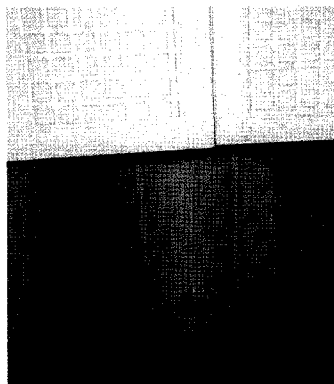
나는 한달전에 '중국을 움직이는 10인의 CEO'라는 책을 한권 써냈다. 딸은 중국을 변화시킨 핵심세력을 정치인으로 보았고, 나는 기업가로 본 것이다. 이런 바쁜 5년이 지났다.

한국은 이제 최대의 숙제가 하나 남아있다. 그건 통일이다. 통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자기 봉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북한의 모든 경제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강대국인 독일도 통일비용 때문에 여지껏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렇다고 통일을 안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통일의 전제조건이 있다. 그건 바로 북한의 경제를 어느 정도 일으켜주고 나서 통일을 하는 방식이다.



○ 대련 평양관의 화장실
(세탁기가 눈에 띄인다.)



○ 평양관의 소변기
(시설은 낡았으나 정성껏 관리한 노력이 보인다.)

그 해결방안의 최선두에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있다. 배로 컨테이너 한 개를 서울에서 파리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은 2200불이다. 반면에 서울-평양-시베리아횡단철도-파리까지 철도를 이용하면 890불밖에 들질 않는다. 가격경쟁력이 훨씬 앞서 있는 것이다.

일본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한해 3억개에 달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고베항을 출발 싱가포르를 거쳐 파리로 가는 노선을 포기하고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까지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국제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남과북에 모두 이익이 된다. 물류통과 비용의 징수는 물론, 물류비 또한 우리의 손에 떨어진다. 이런 거창한 생각을 하면서 중국을 다녔다. 바쁘게 뛰어다녔고, 태어나서 고탕주를 원없이 마셨다.

평양관의 접대원 동무

그렇게 중국땅을 휘젓고 다니던 어느날 한국음식이 먹고 싶어졌다. 뒷골목에서 우연히 한국식당과 맞닥뜨렸다. 평양관, 들어가보니 평양에서 파견나온 복조선 처녀들이

